

2021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공동 하계학술대회

“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위기와 기회 ”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13:00~17:00

진행방식: 화상 학술대회 (Zoom)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lhMZz09>

- 
- 세션 1: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
 - 세션 2: 라틴아메리카 경제
 - 세션 3: 라틴아메리카 생태와 문화
 - 세션 4: 라틴아메리카 국토 도시 개발 협력
 - 세션 5: 대학원 세션

참가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1hMZz09>

일시/장소	프로그램
12:00~13:00	상임이사회
13:00~13:20	개회식 [개회사] • 임상래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축사] • 김홍구 부산외대 총장
13:20~14:50	1부
세션1	<u>“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 세션”</u> [좌장] • 곽재성(경희대) [발표] • 임수진(대구가톨릭대) “2019년 칠레의 시민 저항과 헌법 제정” • 임태균(서울대)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와 볼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 정호윤(부경대) “아래로부터의 민족건설: 2013-2014 브라질의 반(反) 메가스포츠 이벤트 시위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 [토론] • 강경희(제주대), 이순주(울산대), 이미정(한국외대),
세션2	<u>“라틴아메리카 경제 세션”</u> [좌장] • 김기현(선문대) [발표] • 홍성우(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득/소비 불평등을 통해 살펴본 칠레의 불평등에 대한 함의” • 이승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 김종섭·이수지(서울대) “Factors Leading to Success or Failure of Land Reform-The Case of South Korea and Chile” [토론] • 권기수(한국외대), 하상섭(한국외대), 김영석(계명대)
14:50~15:00	커피 브레이크

15:00~16:30	2부
세션3	<u>“라틴아메리카 생태와 문화 세션”</u> [좌 장] • 조구호(한국외대) [발 표] • 조희문(한국외대), “인간중심적 환경헌법에서 생태중심적 환경헌법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기여” • 조영현(부산외대), “생태 위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한 두 개의 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Laudato Si’와 ‘Buen Vivir’ 담론 비교연구” • 박정원(경희대) “‘실패의 정치학’: 라틴아메리카니즘(Latinamericanism)의 현재와 영화 <승리호>” • 조혜진(고려대) “후아나 알바레스의 <Saving the World>에 나타난 감염병과 몸의 식민성” [토 론] • 차경미(부산외대), 이태혁(부산외대), 김선영(서울대), 이경민(조선대)
세션4	<u>“라틴아메리카 국토 도시 개발 협력: 이론과 사례 세션”</u> [좌 장] • 이상현(전북대) [발 표] • 서지현(부경대) “라틴아메리카 공간 개발과 국제 개발 협력의 거버넌스” • 오인혜(전북대) “멕시코시티 구도심 재개발과 국제 개발 협력” • 노용석(부경대) “국토개발로서의 관광 가치 연계 과정 분석-과테말라 안티구아 사례를 중심으로” • 구경모(부산외대) “냉전에 따른 국토 개발 정책의 전환: 파라과이 동진(東進) 정책 사례” [토 론] • 김유경(전북대), 박윤주(계명대)
세션5	<u>“대학원 세션”</u> [좌 장] • 우석균(서울대) [발 표] • 홍아령(경희대) “루크레시아 마르텔의 영화 <사마 ZAMA>의 하위주체의 시선을 통한 전복적 역사 서술” • 김형중(경희대) “Charly García와 Rock nacional을 통해 살펴본 아르헨티나적 문화 횡단(Transculturación)의 가능성-Clics Modernos를 중심으로”

	• 김지선(경희대) "체제를 흔드는 자연과 여성: 중남미 에코페미니즘 소설로서의 『구조거리(Distancia de rescate)』 연구" • 조은지(경희대) "「경계의 미사」, 멕시코 카우보이의 이주민에 대한 위로와 이질적 도시 티후아나" [토 론] • 박경은(서울대), 박호진(한국외대)
16:30~16:45	총회 및 폐회식 [폐회사] • 임상래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원장
17:30~19:00	저녁 식사

참가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1hMZz09>

참가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1hMZz09>

13:20~14:50	1부
세션1	<u>“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 세션”</u> [좌 장] • 곽재성(경희대) [발 표] • 임수진(대구가톨릭대) “2019년 칠레의 시민 저항과 헌법 제정” • 임태균(서울대)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와 볼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 정호윤(부경대) “아래로부터의 민족건설: 2013-2014 브라질의 반(反) 메가스포르츠 이벤트 시위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 [토 론] • 강경희(제주대), 이순주(울산대), 이미정(한국외대),

2019년 칠레의 저항과 헌법 제정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수진

2021.07.16.

• 연구의 배경

칠레 헌법은 피노체트 독재정부가 1980년 제정한 것으로 민주화 이후 몇 차례 개정됐으나 근간은 유지되어 왔음. 신자유주의 성격이 강하고 비민주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1980년 헌법이 현재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2019년 10월,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한 저항이었음. APEC 정상회담까지 취소시킬 만큼 격렬한 저항을 계기로 극심한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헌법을 새로 작성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을 새로 규정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완성하는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의하였음. 이에 시민 주도(bottom-up)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투표 및 제헌의회 선거를 시행하였고, 남녀동수 제헌의원 선출, 원주민 의석 할당 등 민주주의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보여줬음. 칠레 사회에서 이러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과 경험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에 좋은 예시가 될 것임.

• 연구의 목적

칠레 헌법제정의 배경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를 분석하고, 칠레와 같이 불평등 및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정치불안정을 겪고 있는 페루, 콜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먼저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현행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및 관련 조항을 분석함. 다음으로는 헌법제정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제헌의회를 구성하기까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고찰함.

칠레 헌법제정의 배경

1. 2006년 중고교학생들의 칠레학생운동(펑귄 혁명) 시작

- 무상교육과 교육의 질 개선 요구

2. 2010년 우파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an Piñera)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학생들이 가세하면서 교육개혁은 사회적 의제로 발전. 2006년 당시 중고교생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전국대학생연합이 합세하여 더 큰 저항. 이때부터 칠레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써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새 헌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왔음

3. 2019년 10월의 저항

-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과 이에 반발하는 시민저항
- APEC 정상회담 및 COP25(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취소
- 라틴아메리카의 오아시스 칠레, 라틴아메리카 발전모델 칠레의 불평등이 드러나면서 불평등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
- 교육, 의료, 연금 등 사회불평등을 부추기는 사회제도 전반 및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분노표출
- 칠레 헌법의 가치는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데 있고, 기본권 보장은 최소화하였음
- 국민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기본권 보장) 요구
-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동안 칠레의회는 중도좌파연합과 우파연합이 독차지하였고, 좌우 연합이 의회 내에서 5:5를 형성하였으므로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3/5 혹은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헌법 개정이 어려웠음. 또 중도좌파연합은 우파연합과 타협을 하였거나 개정을 하였더라도 부분적인 개정 혹은 관련 법안 도입은 미봉책에 그쳐 신자유주의 사회를 바꾸지는 못하였음.

2017년 선거에서 새로운 좌파연합(Frente Amplio)이 등장하면서 칠레 정치 지형도 변했는데, 1989년 민주화 이후 20년 동안 칠레사회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좌파에 대한 대안세력으로 확대전선(Frente Amplio)이 역할을 하였고, 기존의 중도좌파연합은 두 개로 분열하면서 의석 수를 잃었음. 그러나 의회 구성은 좌파와 우파가 여전히 5:5 구도를 유지하였고, 2018년 집권한 피네라 정부는 헌법제정 요구안을 폐기하였음.

헌법이 모호하다고는 하나 칠레 헌법은 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시스템을 국가가 보장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피노체트 독재 시기 공기업의 90% 이상을 민영화하였을 만큼 칠레는 교육, 의료, 연금까지 모두 민영화하였음. 예를 들어 우루과이 헌법은 개인의 연금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칠레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담아내고 있지 않음. 이를 국가의 개입으로 보고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헌법을 폐기하고 헌법 제정으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함. 새 헌법에 원주민과 여성 등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사회,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국민이 존엄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새로운 칠레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

칠레 제헌의회 구성

- 2020년 10월 25일 국민투표 결과
- 78%의 국민이 새헌법제정에 찬성, 79% 국민은 기존 의원들을 배제한 새 제헌의회 구성에 찬성(다른 안은 기존 의원 50%와 시민 제헌의원 50%로 구성)
- 2021년 5월 15-16일 155석 제헌의회 의원 선출
- 세계최초 제헌의회 성비 균형 구성. 남녀동수 구성(남성이든 여성이든 78명을 넘지 않도록 78:77)
- 1,373명의 후보가 출마
- 기존의원 및 정치인들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시민사회에서는 무소속 당선 운동 전개)
- 후보자 95명이 원주민, 나머지 후보 중 649명이 남성, 629명이 여성
- 17석은 원주민 할당. 마푸체, 아이마라, 케추아 등 원주민 인구 구성에 따라 할당되어 원주민들이 자체 선출

칠레 제헌의회 구성 및 향후 일정

- 제헌의원 155석 중 우파연합 37석, 진보성향 야당 53석, 무소속 48석. 무소속의 승리. 시민사회에서는 직업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해 무소속 의원이 많아야함을 주장해왔음
- 각 조항마다 제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보수여당의 1/3(23.9%) 미만 의석 확보로 현행헌법의 급진적인 변화를 저지하는것이 어려워짐
- 무소속 의원들의 성향은?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변화가 크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 클 수 있음. 분명한 것은 무소속이 개헌의 키를 잡았다는 것임.
- 2022년 7월 3일까지 초안 작성(필요하면 더)
- 2022년 9월 7일 예정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 7월 4일 제헌의회 임기 시작(원주민 여성 Elisa Loncón을 의장으로, 헌법전문 변호사 남성을 부의장으로 선출)

제헌의회 구성</

- 1년 사이에 헌법제정에 정치권

목 차

사례 선택

비폭력 반정부 시

2018년 니카라과

2019년 볼리

2019년 볼리비아 반정부 시위의 발발과 배경

- 군은 국민과의 대립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하며 반정부 시위대와 그에 가담한 경찰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11월10일 미주기구(OAS) 대선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로 선거 불인정, 군은 모랄레스의 사임 촉구 -> 모랄레스 14년 간의 집권 마감하고 대통령직 사임 후 멕시코 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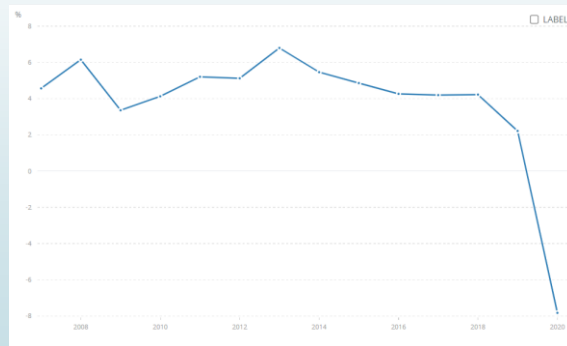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 & 볼리비아 비교 분석

- 거시경제적 요인 (GDP 성장률)
 - 니카라과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 & 볼리비아 비교 분석

■ 볼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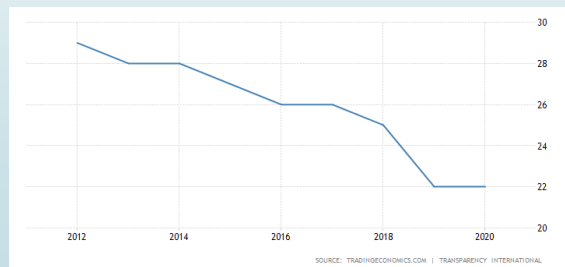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 & 볼리비아 비교 분석

■ 정치적 요인 (부정부패)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 인식 지수)

■ 니카라과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 & 볼리비아 비교 분석

■ 볼리비아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 & 볼리비아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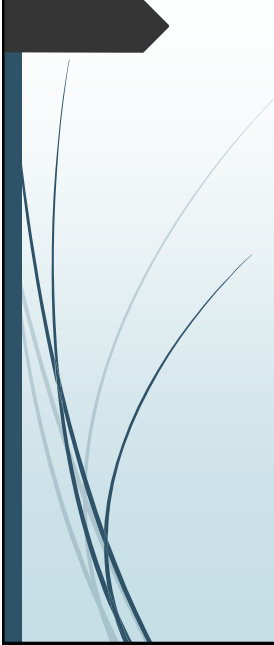
- 국제 시민사회(NGOs)의 미약한 관심
 - Amnesty International이 니카라과 반정부 시위 진압 관련 오르테가 정권을 비판하는 보고서 발행
- 국내 NGO들의 미약한 존재감
 - 기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NGO의 리더십 부재
 - 즉흥적/자발적 참여와 시위 확산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 & 볼리비아 비교 분석

- 외국 정부나 정부간 국제기구의 간섭
 - 니카라과 오르테가 정권에 대한 인권 탄압 비난
 - EU, 미주기구(OAS), 유엔인권이사회(UNHRC),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오르테가 정권 비난, 경제적 제재나 지원 중단
 - 볼리비아 모랄레스 정권에 대한 부정 선거 비판
 - 미주기구 (대통령 선거 감사 실시 및 선거 결과 불인정)
 - 선거 결과에 대해 나뉜 입장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 & 볼리비아 비교 분석

- 정부의 대응 태도
 - 시위 초기에 니카라과와 볼리비아 모두 강경 대응
 - 니카라과에서 더 많은 사상자 발생
- 국가의 잠재적 경제력 (부존자원)
 - 니카라과: 금, 구리, 아연 등 천연자원 소유
 - 볼리비아: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 천연가스, 석유, 은, 주석 등 천연자원 풍부



비폭력 반정부 시위의 성공과 실패: 니카라과 & 볼리비아 비교 분석

- 정부의 군경에 대한 지배력
 - 니카라과 오르테가
 - 경찰과 군대에 대한 높은 지배력
 - 볼리비아 모랄레스
 - 경찰과 군대에 대한 낮은 지배력

아래로부터의 민족건설: 2013-2014 브라질의 반(反) 메가스포츠이벤트 시위와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



정호윤 (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목차

- I. 연구배경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토론
- V. 결론

I. 연구배경

I. 연구배경



I. 연구배경



I. 연구배경



I. 연구배경



I. 연구배경

➤ 반(反) 월드컵 시위의 발발

- 본격적인 2014 브라질 월드컵 및 2016 리우 올림픽 준비가 진행되면서, 브라질에서는 불법적 형태의 국가폭력과 제도적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가 지속됨.
- 이에 따라 많은 브라질 시민들은 월드컵 및 올림픽 개최의 정당성과, 이러한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국가에 초래할 부정적결과와 더불어 이러한 대회들이 평범한 시민들에 미칠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함.
-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적이면서도 산발적인 반 월드컵 시위를 경험함.

I. 연구배경

➤ 연구문제 및 연구질문

- **메가스포츠 이벤트와 민족정체성:** 통상적으로 메가스포츠이벤트는 개최국가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해본다면, 브라질에서의 반 월드컵 시위는 이러한 글로벌 이벤트의 지금까지 당연시된 민족건설 (nation-building) 역할의 종말을 의미.
- **사회운동과 민족정체성:** 기존 사회운동 관련 연구들은 정체성을 독립변수로 바라봄. 사회운동이 민족정체성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뭄.
- 2013-2014년에 걸쳐 발발한 반(反) 월드컵 시위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시위가 브라질의 민족적 상상계 (national imaginaries)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I. 연구배경

➤ 본 연구의 주장:

- 본 연구는 브라질의 반 메가스포츠 운동은 네트워크화 된 계급 간 연대 (networked cross-class coalition)로 규정될 수 있음을 제시함.
- 이러한 시위는 민주주의, 평등, 정의와 시민권 가치와 규범에 바탕을 둔 브라질의 대안적 민족상상계—시민적 민족주의 (civic nationalism)—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즉, 반 메가스포츠이벤트 운동을 통해 발현된 시민적 민족주의 담론이 브라질의 오랜 시간 민족정체성으로서 대표되어온, 종족적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를 바탕으로 한 인종적 민주주의 (racial democracy) 내러티브를 와해시켰다고 주장함.

II. 이론적 논의

II. 이론적 논의

➤ 종족적(Ethnic) 민족주의 vs. 시민적(Civic) 민족주의

- 종족적 민족주의 모델: ‘피’와 ‘땅’에 대한 정서적, 본능적 애착
 - “claims of kinship as manifested in shared culture” (Roshwald 2015).
 - “fictive super-family” based fundamentally on descent, vernacular culture, language, and customs (Smith 1991).



II. 이론적 논의

- 시민적(Civic) 정체성 vs. 종족적(Ethnic) 정체성
 - 시민적 민족주의 모델: ‘자유’, ‘민주주의’, ‘인권’, ‘정의’ 등 일련의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
 - Shared political values, not shared ethnicity (Billing et al. 2016).
 - Willingness to stick to its civic values such as democracy, equality, human rights, and justice, not in terms of shared ethnicity (Ignatieff 1996).
 - Derives from institutions, laws and the legal-political equality of members who hold a commonly shared civic ideology and culture and express themselves in a set of duties and rights (Smith 1991).

II. 이론적 논의

- 인종적 민주주의 (Racial Democracy)?



II. 이론적 논의

- **종족적 민주주의 vs. 시민적 민족주의: 브라질의 맥락에서**
 - 인종적 민주주의는 브라질 사회의 인종주의와 뿌리 깊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추기 위해 엘리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연막 (smoke screen).
 - 권위주의 정권 하, 브라질 내 인종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공론화를 멈추고 인종과 계급에 기초한 조직의 국가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적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적극 사용함 (Eakin 2017).

III. 연구방법

III. 연구방법

- 사례 선정: 이탈적 사례연구 (Deviant Case Study)
 - Gerring (2016): “to explicate the oddball case.”
- 구성주의적 접근 (Constructivist Approach)
 - 정체성의 비 본질화(de-essentializing)
 -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로서의 민족주의



IV. 연구결과 및 토론

IV. 연구결과 및 토론

➤ 반(反) 월드컵 시위의 발발

- 2013년 상파울루 버스요금 인상: “브라질의 봄(Brazilian Spring)”의 도화선?
- 시위의 의제에 반(反) 메가스포츠이벤트가 포함, 단독 의제로 발전. 2013-2014년에 걸쳐 시위 전개.



States	Cities (Time)
Alagoas	Maceió (16h), Rio Largo (18h30)
Amapá	Macapá (15h)
Amazonas	Manaus (17h)
Bahia	Salvador (13h)
Ceará	Fortaleza (16h)
Distrito Federal	Brasília (16h)
Espírito Santo	Vitória (17h)
Goiás	Goiânia (17h), Catalão (17h), Porangatu (19h30), Rio Verde (18h), Itumbiara (18h)
Maranhão	São José de Ribamar (16h), Bacabal (16h30), Imperatriz do Maranhão (18h)
Mato Grosso	Cuiabá (17h)
Mato Grosso do Sul	Campo Grande (17h)
Minas Gerais	Belo Horizonte (17h), Betim (pela manhã), Cambuquira (14h), Poços de Caldas (17h), Varginha (17h), Uberlândia (17h), Boa Esperança (17h), Camanducaia (17h), São Lourenço (17h), São Sebastião do Paraíso (17h30), Itajubá (17h30), Caxambu (18h), Três Corações (18h), Lavras (18h), Araguari (16h30)
Pará	Belém (15h)
Paraíba	João Pessoa (16h), Campina Grande (16h)
Paraná	Curitiba (18h), Londrina (14h), Castro (16h30), Araçatuba (17h), Maringá (18h), Cascavel (18h30), Ponta Grossa (19h)
Pernambuco	Recife (16h), Petrolina (15h), Lagoa Grande (16h), Garanhuns (16h), Arcoverde (17h)
Piauí	Teresina (16h), Parnaíba (16h), Campo Maior (16h), Picos (16h), Paulistana (16h), Miguel Alves (16h)
Rio de Janeiro	Rio de Janeiro (17h), Campos (16h), Volta Redonda (16h), Rio das Ostras (17h), Macaé (17h), Resende (18h), Silva Jardim (17h), Búzios (17h), Saquarema (17h), São José do Vale do Rio Preto (17h), Teresópolis (17h), Areal (17h), Cordeiro (17h), Quissamã (17h), Natividade (17h)
Rio Grande do Norte	Natal (17h)
Rio Grande do Sul	Porto Alegre (18h), Santa Rosa (17h), Bagé (17h), Santa Maria (17h), Cruz Alta (17h), Santa Cruz do Sul (17h), Rio Grande (17h), Alegrete (1h), Ijuí (17h), Pelotas (17h), Cachoeira do Sul (17h30), Passo Fundo (18h), Lajeado (18h30), São Leopoldo (18h), Santo Antônio da Patrulha (17h), São Lourenço do Sul (17h), Itaqui (18h), Santana do Livramento (18h), Santiago (18h), Tenente Portela (18h), Cerro Largo (18h30), São Sebastião do Cai (18h30)
Roraima	Boa Vista (18h)
Santa Catarina	Florianópolis (18h), Itajaí (17h30), Blumenau (18h), Joinville (18h30)
São Paulo	São Paulo (17h), Campinas (17h), Santos (17h), Caraguatatuba (17h), Guaratinguetá (17h), Rio Claro (17h), Tambaú (17h), Ilhabela (17h), Ituverava (17h), Jacareí (17h), Taubaté (17h), Cruzeiro (17h), Sertãozinho (17h), Limeira (17h), Piracicaba (17h), São José dos Campos (17h), São Carlos (17h), Ribeirão Preto (17h), Mogi das Cruzes (17h), Franca (17h30), Lorena (17h30), Ferraz de Vasconcelos (17h30), Americana (18h), Laranjal Paulista (16h), Mirassol (16h), Sorocaba (17h), Itu (17h), Castilho (17h), Ilha Solteira (17h), Porto Feliz (18h), Bauru (18h), Jau (18h), Araçatuba (18h), Itapeva (18h), Cerquilha (18h), Itape (18h)
Sergipe	Aracaju (17h)
Tocantins	Palmas (17h), Gurupi (17h), Araguaína (17h)

IV. 연구결과 및 토론

- 네트워크화 된 계급 간 연대 (networked cross-class coalition)
 - “Networked Outrage”, “Networked Activism”



IV. 연구결과 및 토론

➤ 네트워크화 된 계급 간 연대 (networked cross-class coalition)

- CSP (Central Sindical Popular) 및 Comitê Popular da Copa의 멤버: “초기의 반 월드컵 시위는 하류층이 주도, 시간이 갈 수록 백인 중산층이 가세”
- IBOPE (Instituto Brasileiro de Opinião Pública e Estatística): 2013년 6월 시위 참여자들의 79%가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음을 밝힘.



IV. 연구결과 및 토론

- “브라질은 불공정 및 부패된 사회”
-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총체적 실패”
- “인종적 민주주의는 허상이다.”
- “브라질인들은 더 나은 교육, 의료 및 치안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IV. 연구결과 및 토론



IV. 연구결과 및 토론

- 20세기를 통틀어 인종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종족적 정체성이 '브라질인'임을 규정하는 핵심이었다면, 21세기 브라질인들의 정체성은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네트워크화 된 계급간 연대에 기반한 반 월드컵 시위는 인권, 민주주의, 평등, 정의와 시민권 가치와 규범에 바탕을 둔 브라질의 대안적 민족상상계—시민적 민족주의 (civic nationalism)—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즉, 반 메가스포츠이벤트 운동을 통해 발현된 시민적 민족주의 담론이 브라질의 오랜 시간 민족정체성으로서 대표되어온, 종족적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를 바탕으로 한 인종적 민주주의 (racial democracy) 내러티브를 와해시켰다고 주장함.

V. 결론



V. 결론

- 본 연구는 2013-2014년, 브라질의 반(反) 메가스포츠이벤트 시위를 브라질의 '민족정체성의 정치'적 시각에서 조망함.
- 대안적 상상공동체의 등장: 시민적 민족주의
- 인종적 민주주의라는 대중 이데올로기의 붕괴?
- 축구로 형성된 인종적 민주주의, 축구에 의해 와해된 인종적 민주주의
- 아래로부터의 민족건설(nation-building from below)

V. 결론

- 홍콩의 민주화 운동: 시민적 민족주의의 부상?



참가 URL: <https://bufs.zoom.us/j/83918170077?pwd=M3NKQnFld2VJbm4yNjRqRVFYa1hMZz09>

13:20~14:50	1부
세션2	<u>“라틴아메리카 경제 세션”</u> [좌 장] • 김기현(선문대) [발 표] • 홍성우(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득/소비 불평등을 통해 살펴본 칠레의 불평등에 대한 함의” • 이승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 김종섭·이수지(서울대) “Factors Leading to Success or Failure of Land Reform—The Case of South Korea and Chile” [토 론] • 권기수(한국외대), 하상섭(한국외대), 김영석(계명대)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하계학술대회 | 2021년 7월 16일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을 통해 살펴본 칠레의 불평등에 대한 함의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홍 성 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II.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III. 분석결과

IV. 결론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의 배경

향후 중남미 지역에서 제2의 Pink Tide 도래 가능성

- 칠레 제헌의회 선거결과: 보수 여당 연합이 제헌의회 155석 중 37석을 차지함으로써 패배
- 페루 대선 결과: 급진 좌파 카스티요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제2의 Pink Tide 도래 가능성 전망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

- 칠레: 피노체트 정권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 의료, 복지 등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불평등이 현재까지 누적되어 왔을 개연성이 있음.
- 페루: 중남미 내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 문제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지속(이승호,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
- 2000~19년 연간 경제성장률(World Bank): 브라질 2.39%, 칠레 3.76%, 멕시코 2.08%, 페루 4.77%

연구의 목적

칠레의 불평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을 중심으로

-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오랜 기간 펼쳐온 칠레의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중남미 내 다른 국가들의 경제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페루의 카스티요 당선자는 후보 시절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로 신자유주의 노선 탈피를 내걸었음.

본 연구의 contribution: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분석적 접근, 소비 불평등에 대한 분석

- 지니계수 또는 로렌츠곡선을 통한 불평등 분석의 한계를 보완
-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 국가가 실제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함.
- 학술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의 추세가 비슷 vs. 서로 다른 양상
- 중남미의 소비 불평등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황에서 동 분석을 통해 칠레의 불평등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진단

기존연구

칠레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 Lopez and Miller (2008): 절대적 빈곤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연구
- Contreras (2003): 1990-96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절대빈곤 감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연구
- Torche (2005): 1981년 교육부문의 민영화 개혁 이후 칠레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연구
- Agostini et al.(2010): 대표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를 보정하고, 이를 활용한 원주민들의 불평등과 빈곤에 대한 연구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칠레의 상대 빈곤율의 변화

- 그림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절대 빈곤율은 많은 개도국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절대 빈곤율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향이 있음.

2. 칠레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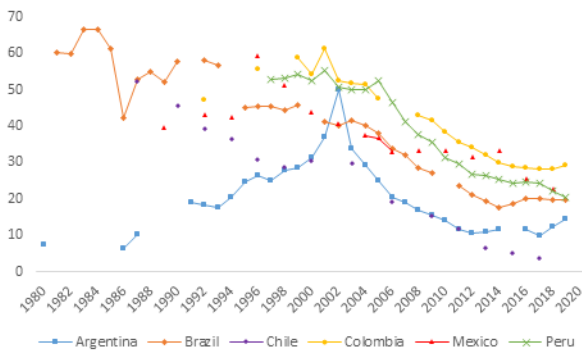
-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분석 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불평등도 산출
-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불평등, 중산층-고소득층 간 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시사점 제공
- 가구 소비 품목별로 소비 불평등을 계산함으로써 어떤 재화(goods)에서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는지 분석

II.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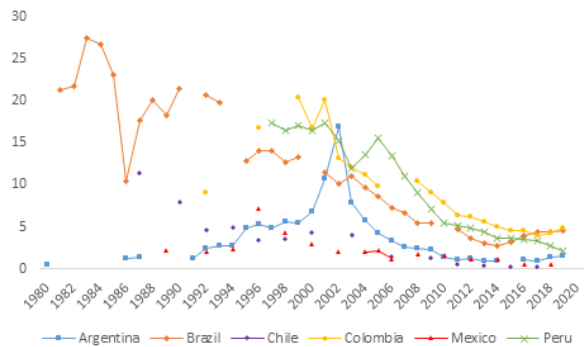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그림 1. 중남미 주요국의 절대 빈곤율 변화

(A) 전체 인구 대비 하루 5.5달러 미만 소득자 비율



(B) 전체 인구 대비 하루 1.9달러 미만 소득자 비율



7

II.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분석을 위해 칠레의 가구예산조사(Encuesta de Presupuestos Familiares) 데이터틀 활용

- 동 데이터는 가구단위로 표본추출(sampling)하여 해당 가구 내의 모든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조사
- 일반적인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변수들과 함께 세분류로 나누어진 품목별 소비 지출액을 제공하므로 소득 계층별 소비 지출액을 파악할 수 있음.
- 약 10,000가구에서 15,0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
- 본래 10년 주기로 조사되어 오다가 6차 조사부터 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음.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가구 소득과 가구 소비를 이용하여 빈곤과 불평등 분석

- 상대적 빈곤율: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정의
- 상대적 소비 빈곤율: 가구 지출액 기준으로 중위지출의 50%에 해당하는 지출을 상대적 소비 빈곤선으로 정의
- 불평등: 소득 및 소비를 10분위로 나누어 9분위/1분위 비율, 9분위/5분위 비율, Log(소득 및 소비)의 분산 등으로 측정

8

Ⅲ.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소득 및 소비 빈곤

그림 2.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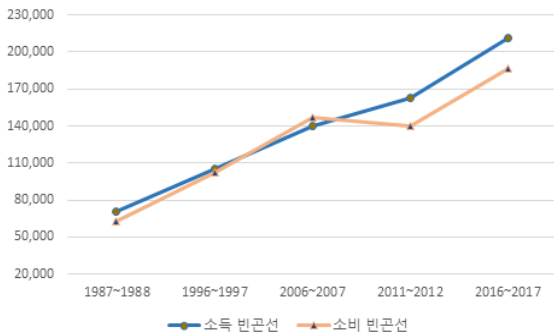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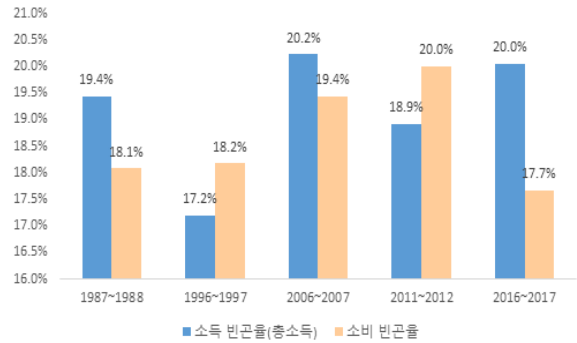


그림 3.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



Ⅲ.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소득 및 소비 빈곤

그림 2와 그림 3으로부터 주목할 점:

- 그림 3에서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의 추세가 뚜렷한 차이를 보임.
-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에 소비 빈곤선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빈곤율은 하락
- 2016~17년 소득 빈곤율과 소비 빈곤율의 격차가 조사된 기간 중 가장 컸음.

이러한 분석 결과의 의미:

- 2011~12년과 2016~17년의 빈곤율을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 계층의 지출은 소득 감소분만큼 줄지 않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즉, 소득과 소비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

Ⅲ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

그림 4. 소득 및 소비 불평등(9분위/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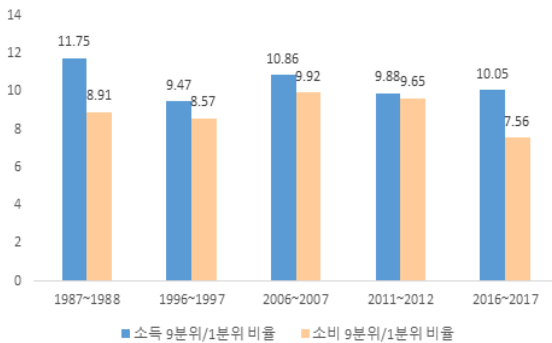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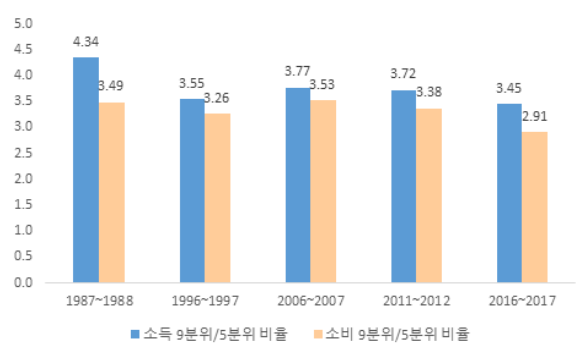


그림 5. 소득 및 소비 불평등(9분위/5분위)



Ⅲ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소득 및 소비 불평등

그림 4와 그림 5의 분석 결과 및 의미:

- 그림 4에서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과 소비 불평등 간 패턴의 차이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확대되어 소득 불평등은 악화된 반면, 소비 격차는 감소
- 식료품비, 의료비, 교통비 등 필수재에 대한 지출로 정의되는 핵심 생계비가 증가함으로써 가용소득이 감소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을 가능성
- 그림 4와 5를 비교하면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에 중산층-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고소득층 사이의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짐.

Ⅲ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지출 항목별 소비 불평등

그림 6. 식료품, 주류, 담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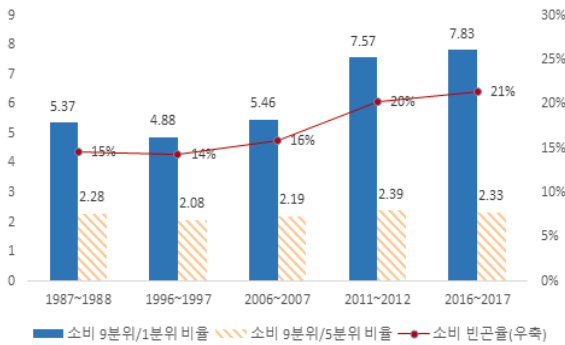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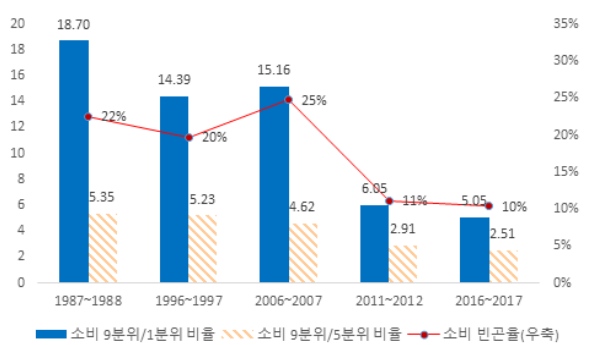


그림 7. 주거비,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등



13

Ⅲ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지출 항목별 소비 불평등

그림 6과 그림 7의 분석 결과 및 의미:

- 식료품, 주류, 담배 등 필수재 성향의 재화에 대한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소비 불평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확대
- 2006~07년 2011~12년 사이에 저소득-고소득층 간 소득 불평등은 감소(그림 4. 10.86→9.88)하였으나 동 기간 중 재화에 대한 소비 불평등도는 증가
- 이러한 결과는 동 재화가 필수재임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층이 소득 감소를 이유로 전체 소비 중 식료품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였을 가능성, 또는 빈곤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의 효과일 수 있음.
- 반면, 주거비, 주거관리비, 수도광열비에 대한 저소득-고소득층 간 소비 불평등도는 2006~07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 항목에 대한 저소득-고소득 간 지출 격차가 상당히 줄었음을 의미

14

Ⅲ 분석 결과

분석 결과: 항목별 저소득 가구의 지출 변화

표 1.대분류 기준 품목별 월평균 소비 지출 변화 (단위: 천원, 퍼센트)

소비 품목	조사연도	1987~ 88	1996~ 97	2006~ 07	2011~ 12	2016~ 17	통신비	빈곤가구	259 (0.5%)	3,975 (5.4%)	6,615 (6.8%)	7,470 (6.4%)	12,995 (9.4%)
식료품, 주류 담배	빈곤가구	80,025 (78.3%)	108,934 (79.7%)	112,589 (66.8%)	98,349 (49.8%)	117,996 (50.7%)	교양오락비	빈곤가구	1,542 (3.2%)	4,144 (6.2%)	5,484 (6.0%)	8,634 (7.5%)	11,229 (8.1%)
의류, 신발	빈곤가구	4,854 (9.9%)	8,471 (12.4%)	8,706 (10.1%)	5,308 (5.0%)	8,049 (6.2%)	교육비	빈곤가구	455 (0.9%)	2,052 (2.9%)	5,630 (6.5%)	9,452 (8.5%)	14,881 (10.4%)
주거비,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빈곤가구	10,117 (19.3%)	17,241 (23.0%)	28,987 (29.8%)	81,517 (66.1%)	121,479 (81.2%)	기타	빈곤가구	1,337 (2.7%)	4,354 (6.3%)	10,623 (11.7%)	9,554 (8.8%)	11,312 (8.3%)
보건의료	빈곤가구	1,238 (2.4%)	3,214 (4.1%)	6,024 (6.0%)	7,277 (6.0%)	15,733 (11.0%)	빈곤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		102,170	136,722	168,472	197,380	232,886
교통비 (차량구입비 포함)	빈곤가구	7,292 (15.1%)	8,437 (12.4%)	17,052 (18.8%)	15,747 (14.4%)	23,818 (17.9%)	빈곤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비		141,597	223,302	293,053	281,891	387,323
							월평균 소득 대비 소비 비율		(138%)	(163%)	(173%)	(142%)	(166%)

15

Ⅲ 분석 결과

분석 결과: 항목별 저소득 가구의 지출 변화

표 1의 분석 결과 및 의미:

- 표 1의 괄호 안 수치는 빈곤 가구의 월평균 소득 대비 해당 항목의 월평균 가구 지출의 비율
- 빈곤가구는 소득을 상당히 상회하는 소비를 하고 있음.
- 월평균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2006~07년에 가장 높았지만,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에 동 비율이 상승하여 저소득 가구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음.
- 2016~17년 기준 소비의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주거비/주거관리비/광열수도비였으며, 그 뒤를 이어 식료품/주류, 교통비, 보건의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주거비/주거관리비/광열수도비, 교통비, 보건의료비의 지출은 핵심생계비로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전력, 의료, 교육 등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에서의 높은 민영화 정도가 핵심생계비를 늘림으로써 저소득 가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16

결론

- 2011~12년과 2016~17년 사이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악화되었고, 상대적 소비 빈곤율은 오히려 하락하였음.
- 칠레의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고소득 계층 간 불평등의 정도가 심각함.
- 저소득-고소득 간 소득 및 소비 불평등을 통해 저소득층은 소득의 감소와 소비의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여 재정적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소비 측면에서 저소득가구는 식료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교통비, 주거비,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
 - 교통, 의료, 복지 등의 부문에 대한 상당한 민영화의 결과일 개연성이 있음.

참고문헌

Lopez and Miller. 2008. Chile: The unbearable burden of inequality. *World Development*.

Contreras. 2003. Poverty and inequality in a rapid growth economy Chile 1990-96.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Torche. 2005. Privatization reform and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The case of Chile. *Sociology of Education*.

Agostini, Brown, and Roman. 2009. Poverty and inequality among ethnic groups in Chile. *World Development*.

감사합니다

KIS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년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공동 하계학술대회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이승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연구의 배경

- 중미 국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높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비롯된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은 크게 저해
- Germanwatch의 Global Climate Risk Index(2021)에 따르면 2000-19년 평균 기후변화 관련 위험지수 세계 순위에서 과테말라 16위, 엘살바도르 28위, 니카라과 35위, 온두라스 44위 기록
 - 기후변화 관련 위험지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태풍, 홍수, 산사태, 가뭄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추정하여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 정도와 취약성을 수량화
- 중미 국가에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 중미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활동보다는 적응 활동에 초점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신기후체제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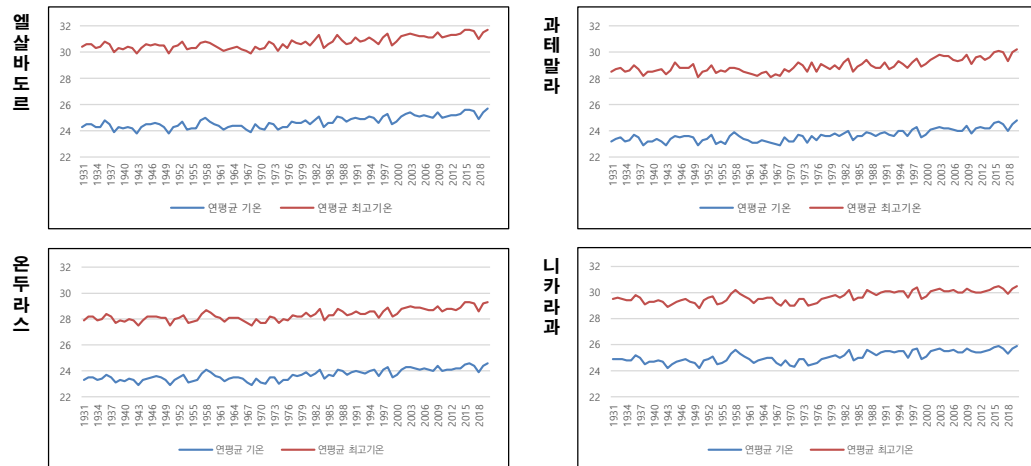
- 기후변화 적응은 실제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 및 기후의 영향에 대응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 또는 회피하는 것이 목적
-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추이: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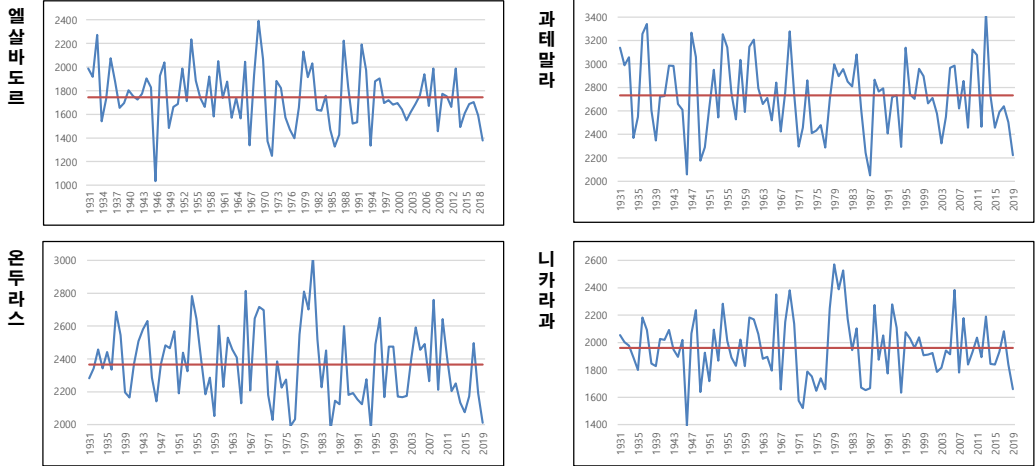
중미 4개국 기온 추이(1931-2020), 단위: 섭씨



출처: CRU TS Monthly High Resolution Gridded Multivariate Climate Dataset(2020)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추이: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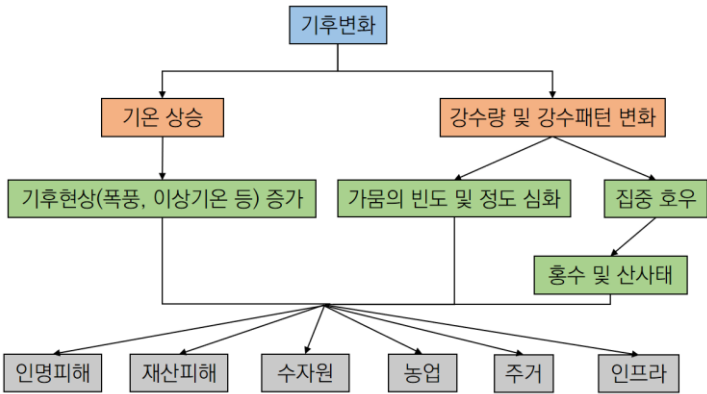
중미 4개국 강수량 추이(1931-2020), 단위: mm



출처: CRU TS Monthly High Resolution Gridded Multivariate Climate Dataset(2020)을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기후변화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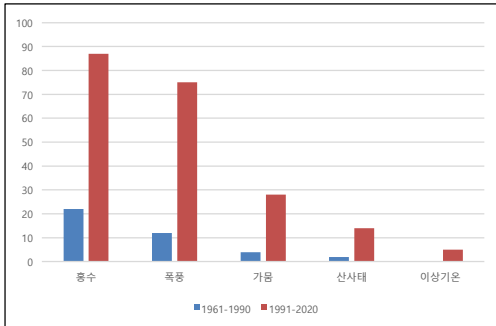
-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광범위한 분야에 악영향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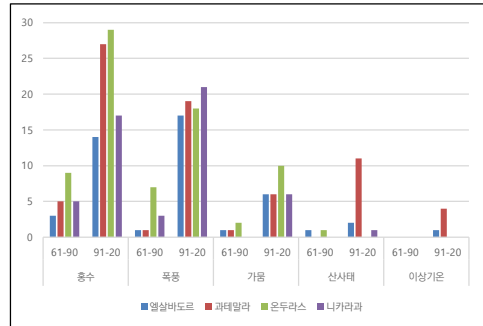
중미 국가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자연재해 빈도 증가

-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가 빠르게 증가

중미4개국 자연재해 유형별 발생 횟수



중미4개국 자연재해 유형별 · 국가별 발생 횟수



출처: EM-DAT Database(2021)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중미 국가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 (단위: 명)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1991-1995	32	96	618	75
1996-2000	501	527	26,643	3,617
2001-2005	118	2,170	108	72
2006-2010	328	528	243	299
2011-2015	48	487	37	73
2016-2020	107	338	166	46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 수 (단위: 명)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1991-1995	9,500	8,035	122,969	213,085
1996-2000	91,950	114,717	2,691,126	1,284,067
2001-2005	476,073	700,675	611,284	246,324
2006-2010	108,320	3,168,209	424,542	354,556
2011-2015	1,020,000	2,278,345	789,508	710,762
2016-2020	544,658	4,572,613	6,029,223	1,306,485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단위: 백만 달러)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1991-1995	1	14	184	23
1996-2000	762	1,021	5,215	1,364
2001-2005	469	1,240	305	3
2006-2010	986	1,319	121	-
2011-2015	1,228	182	2	-
2016-2020	258	431	5,000	919

GDP 대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단위: %)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1991-1995	0.00	0.01	0.44	0.09
1996-2000	1.01	0.75	10.63	4.56
2001-2005	0.57	0.78	0.51	0.01
2006-2010	1.09	0.68	0.16	-
2011-2015	1.22	0.08	0.00	-
2016-2020	0.23	0.16	4.85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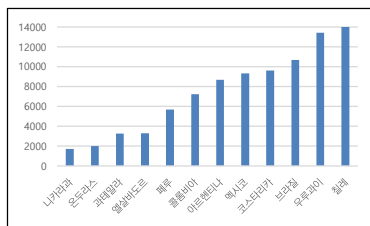
출처: EM-DAT Database(2021)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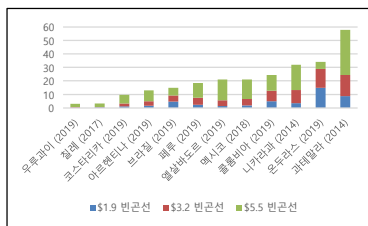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취약계층과 취약 분야가 분명히 존재
- 중미 국가는 소득수준, 빈곤율,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균적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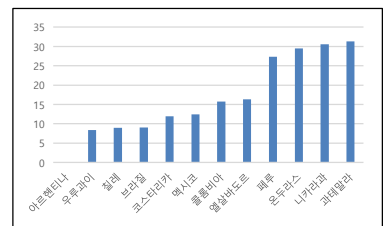
2020년 1인당 GDP (단위: 2010\$)



전체 인구 대비 빈곤선별 비중 (단위: %)



2019년 전체 고용 대비 농업 비중 (단위: %)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21)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은 중미 국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mainstreaming)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마련
- 하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저해요인이 많아 기후변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전반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며,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악영향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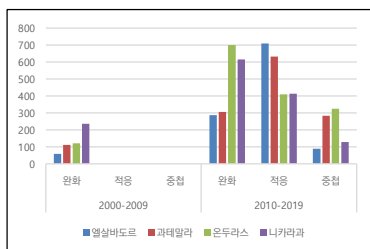
- 중미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 주요 정책과 사회경제적 저해요인 파악
 -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국가재난관리계획(Natural Disaster Management Plan), 국가개발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 등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저해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
- 국가별 취약 영역 식별 및 주요과제 도출
- 주요 공여국, 다자은행, 다자기후기금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대중미 재정지원 현황 및 전략을 분석
 -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공여국과 WB, IDB, CAF 등 주요 다자은행, Green Climate Fund, Green Technology Fund 등 주요 다자기후기금의 재정지원을 유형화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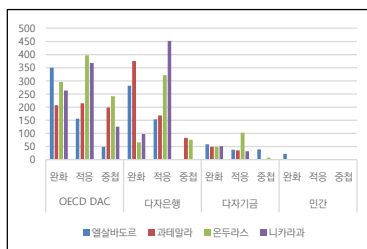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

- 국제사회의 대중미 기후변화 관련 재정지원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하는 재정지원은 2010년부터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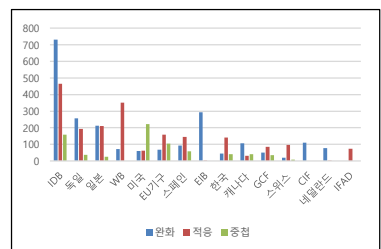
국가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0-19 공여 주체 유형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0-19 대중미 4개국 상위 공여 주체 재정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출처: OECD 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 Data (2021)를 이용하여 저자 재구성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한국의 협력방안

- 이처럼 각국의 기후변화 추이 및 피해상황과 주요 정책 및 역량을 분석해 관련 수요를 도출하고 국제사회 지원 현황을 분석해 적응 적자(adaptation deficit)가 발생하는 취약영역에서 한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
- 최근 한-중미 5개국 FTA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미주개발은행(IDB) 협조융자 퍼실리티 확대 등 중미 국가와의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
- 한편 기후변화 적응 어젠다에서 한-미-중미 간 3자 협력 가능성을 염두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미 북부삼각지대(Northern Triangle) 3개국과 니카라과에 대한 억제적 이민정책에서 탈피해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주요 어젠다로 지목

감사합니다

Factors Leading to Success or Failure of Land Reform

– The Case of South Korea and Chile –

Chong-sup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uji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bstract Land reform has been pointed out by many scholars to be one of the main policies that explain the unprecedented growth of South Korea and its relatively equal social structure. This has been contrasted with the case of Chile, and with Latin America as a whole. Chile, despite its promising economic performance relative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has maintained high levels of land inequality which have been extended to many facets of social-structural inequality.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of land reform in Chile since the 1960s, but they have been regarded by various scholars as a failure. This study has tried to compare the land reform of South Korea and Chile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in order to find out what factors decide the success and failure of such policies. From the analysis of post-World War II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the land reform introduced during the Frei and Allende administrations in Chile, it has been found that the U.S. plays a big role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land reform and sustaining it. Strong motivation and great amounts of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by the U.S. were important factors leading to successful redistribution of land in South Korea. Besides this, this study found out that restricting the landowner class' political influence was important for achieving redistribution.

Keywords: land reform; inequality; U.S. foreign policy; South Korea; Chile; peasants; landowners.

Introduction

In terms of economic growth, South Korea and Chile have been star performers of the outward oriented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introduced in the 20th century. They have both been able to achieve positive economic growth, which distinguished them from other underperforming countrie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These countries have also been included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being among the both economically prosperous economies and politically democratic countries in the early 1990s. Yet, inequality-wise these two countries have experienced differing paths. In order to alleviate the unequal social structure, extensive land redistribution policies were introduced in East Asia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Ever since, South Korea has been able to maintain low levels of inequality, showing strong correlation between land reform and inequality (Kay, 2006), whilst Chile has experienced high peaks in distributional outcomes along with failed attempts of land distribution (Teichman, 2012). Through this study, we are interested in finding out what were the determinants that caused the success and failure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Chile respectively.

Chile implemented land reform since the 1960s, and after various attempts they were considered to be a failure. Today, Latin America is being recognized as the most unequal region in the world, in terms of land tenure. Especially, Chile, with a Gini coefficient for land distribution of 0.91. This estimate is serious in that Chile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unequal country in Latin America with only Paraguay being ahead of it (FAO, 2011). It is important then, to find the causes of such inequality, since it can limit further development of a country with high potential. Both South Korea and Chile have introduced extensive land reform programs throughout the 20th century. A particularity of these two specific countries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playing a significant part in domestic policy-making,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land issue. This study will initially argue that the involvement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ever form,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both the success and failure of land reform in these two countries being analyzed.

Analytical Framework

This study consists of a qualitative research of two country cases that had different land reform outcomes: Chile and South Korea. These two countries have been selected based on the ‘most-similar case’ approach¹. It will also introduce a new model (“Pressure-Capability-Trigger Model) developed by the author,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e Fogg Behavior Model (FBM)². The case of South Korea will deal with the land reform implemented since the immediate post-liberalization timeline. This is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land reform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that had a more continuous nature. In Chile, the nature of land reform changed drastically depending on the period of implementation and the government in charge of inducing it. Thus, for the Chilean case two time periods will be undertaken: the 1964–1970 Eduardo Frei land reform, and the 1970–1973 Salvador Allende land reform.

Fogg Behavior Model: BJ Fogg’s behavior model (FBM) has been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explaining what causes specific human behavior. The model proposes three factors that when simultaneously combined bring about the targeted action of the individual. These are (1) high motivation, (2) high ability, and (3) the adequate prompt that will bring about the behavior (Fogg, 2009).

Most-Similar Case Approach: As Gerring (2007) has defined, the ‘most-similar’ case study is a method of selecting two or more cases that are similar in all aspects except the variable(s) of interest. This methodology consists of three different variables. These are, the variables of interest (X1), the “control” variable (X2), and the outcome (Y). The selection of South Korea and Chile under this methodology can be justified in that they both experienced similar patterns of development but differed in the outcomes of land reform despite their similarity. Additionally, Gerring (2007) puts forth two different case types which a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way one approaches the research. The one that will be applied in this study is the hypothesis-generating method where the outcome (Y) differs, whilst the “control” variable(s) (X2) is similar or equal. Thus, this type of research will try to find the factors that differ (X2) that make the research significant. In the hypothesis-testing approach, the researcher will try to look for cases with differing variables of interest (X1), and similar “control” variables (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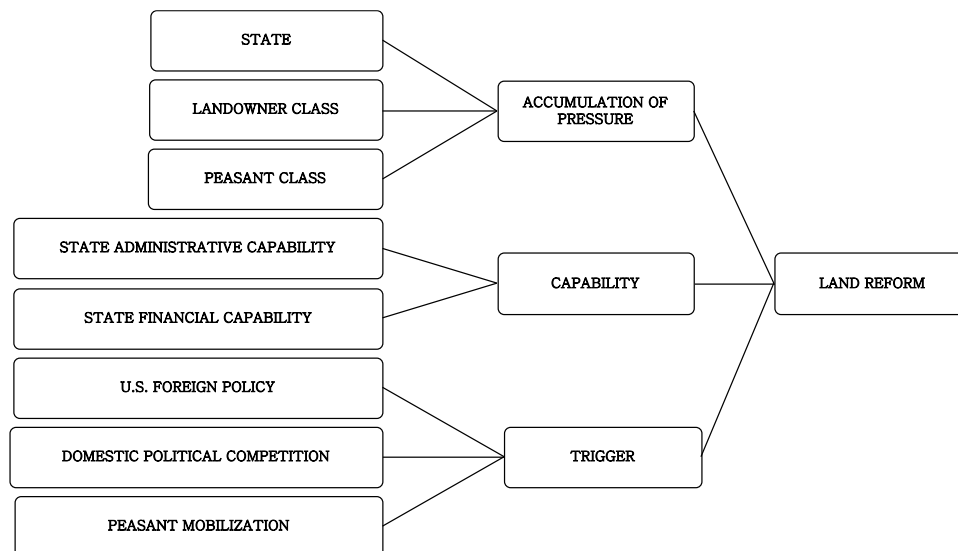
Pressure-Capability-Trigger Model: In this research, the author has inserted a modified version of the Fogg Behavior Model and has further interpreted the findings through the Most-Similar Case study methodology from the case study of two individual states– Chile and South Korea. Based on the study of previous literature, various actors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cess of land reform implementation have been selected as the unit of analysis for explaining the observed goal. This study will use the most-similar case of land reform in South Korea and

¹ This method was developed by associate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Boston University, John Gerring in his book *Case Study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s*.

² The Fogg Behavior Model (FBM) was developed by social scientist at Stanford University, Brian Jeffrey Fogg, through his article *A behavior model for persuasive design* published in 2009.

Chile, with special focus on the hypothesis-generating approach. Additionally,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ehavior Model, these factors of interest (X1)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ree sectors depending on their role in land reform implementation– Accumulation of Pressure, Capability, and Trigger as has been visually presented in [Figure 1].

[Figure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ressure–Capability–Trigger Model applied to the case of Land Reform.



Source: Author

A key aspect that should be mentioned within the analytical framework taken in this study, is that the factors of interests (X1) will be rated either *weak*, *medium*, or *strong* depending on their influence in land reform. In this study, ‘weak’ refers to those factors that have very small influence over th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land reform. It is based on the literature and official documents of the participation of this group, that is either bound by law, or has overtly opposed to land reform. ‘Medium’ compounds the groups that have had the intention to introduce land reform, yet, its influence has been limited. Nevertheless, those factors classified as ‘medium’ have been found to be in most cases weak factors that have been supplemented by other external factors. Classification of ‘strong’ has been labelled to those with both strong overt and covert influence in both the introduction, implementation, and sustenance of agrarian reform.

Interpretation of the PCT Model Findings

Accumulation of Pressure: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land reform is exclusive in that it occurred under special circumstances. The land reform process was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and went on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its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in 1948. During the period, we have found that South Korean state’s motivation for land reform was weak. Nevertheless, despite the post-war chaotic situation, Choi and Park (2013) have pointed out that one of the underlying reasons why South Korea actively implemented land reform in the post–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was due to the political interest of president Syngman Rhee in repressing the economically influential political landowning class (Choi and Park, 2013). This situation was complimented by a weak landowner class and a strong peasant class that actively proposed land reform from early years of post-liberalization from Japan. In contrast, the Chilean case under the Frei administration (1964–1970) shows a medium strength state, a disempowering situation that can

be explained with the strong influence that the landowner class had historically been exerting in domestic politics (Teichman, 2012).

Although one of the first official attempts for implementing land reform occurred during this period, we have found out through the analysis that it was highly manipulated by the landlords at the expense of a weak peasant class, whose survival depended on the former. This situation experienced a drastic change with the entry of the radical socialist party led by Salvador Allende (1970–1973) backed by the peasant class. The motivation of the state in this period was strong in the sense that Allende pushed forth the biggest and the fastest land reform attempts of Chilean history. Having a strong political support from the peasants, this group experienced an increase in political participation whilst the landowner class' political power became relatively weak.

Capability: Capability has been divided into two groups: state administrative capability and state financial capability. This analysis the capacity of states to carry out land reform once it has been implemented. The former deals with the capability of states to carry out land reform in an effective manner. The latter is an analysis of the financial ability of the state forces to provide the necessary means for achieving land reform.

In almost all cases, we have found that both South Korean and Chilean stat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capability for implementing and sustaining land reform has been medium. With the exception of the Allende administration's financial capabilities, that were found out to have been weakened due to the world economic recession that hit Chile during this period. An important fact that should be mentioned is that both South Korea and the Frei administration had been receiving great sums of aid from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eriod of land reform implementation. Especially, Chile under Frei had been part of the *Alliance for Progress* led by the U.S. which the Allende administration had not. Thus, it was not that the state had financial capacity to implement land reform, but both states were being complimented by the foreign aid from the United States.

Trigger: This section analyzed the effect of some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led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land reform implementation. All three land reforms occurred during the Cold War geopolitic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more than in Chile, the Communist threat posed by a belligerent Soviet backed north Korea was felt more strongly. Yet, the heated confrontation between Cuba and the U.S. in the 1960s led the latter to get activel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al anti-communist campaigns in Latin America. In turn, the United States took different approaches in terms of foreign policy. The difference in U.S. stance between the Allende and the Frei administration would be the high support that Frei received. In fact, the United States, in fear of Allende implementing communist ideas in Chile, backed the 1970 military coup led by the following military dictator Augusto Pinochet. Although this factor is highly scruti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ffects that this forceful governmental transition had in land reform cannot be overseen. With the entrance of neoliberal Pinochet, the land reforms that had been achieved during the past years were reversed. He not only dismantled the *asentamientos* and the CERAs, but he even returned the expropriated lands back to their former owners, giving back the power base of the landowning class (Castillo & Lehmann, 1982).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in South Korea and Chile were both strong. In South Korea as reported by General Hodge to General Douglas McArthur, it had been left in chaotic

political conditions after liberation which was complemented by numerous domestic competitions among the left-wing and right-wing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fill in the power vacuum (Kim, 2016). Especially during the Cold War geopolitical environment, this competition was intensified by the United States trying to avoid a communist turn of its key strategic allies by providing resources to U.S.-friendly political parties as can be seen during the 1964 Chilean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1970 military coup. Peasant mobilization has proved to be crucial for the initiation of land redistributive attempts in countries with high inequality of land assets. In South Korea such protests were strong. Such that it actually was one of the factors that led the state to actively introduce land reform policies. During Allende administration they were also strong, which explains the rapid and active implementation of redistribution. In the case of Eduardo Frei, landowners and the state law repressed such movements. Thus, the redistributive outcomes of land reform were moderate when compared to the above-mentioned cases.

Hypothesis-generating Interpretation of PCT Model

By classifying the previous findings into the hypothesis-generating model of the ‘Most-similar cases’ (Gerring, 2007) we are able to derive the following [table 1] and [table 2]. These tables classify the variables in the rows X1, X2, and Y. As mentioned previously, the variables of interest are grouped together under the row X1. These have been filtered out through the previous analysis based on the Pressure-Capability-Trigger Model. X2 is a compilation of the control variables that have shown similarity for both country cases. These variables will be held aside in the interpretation section since they will not be significant for what is being dealt in this study. Variable Y shows the differences in land reform outcomes that the author wants to explain through this analysis. Finally, the far-right columns contain the country cases of land reform used for this case study; post-World War II South Korea and Chile in the 1964-1970 and 1970-1973.

[Table 1] Interpretation of the PCT Model Findings through the Hypothesis-generating Model (part 1)

Hypothesis-generating Model			CASES	
			South Korea	Chile (1964-1970)
VARIABLES	X1	State	Weak	Medium
		Landowner Class	Weak	Strong
		Peasant Class	Strong	Weak
		Peasant Mobilization	Strong	Weak
	X2	State Administrative Capacity	Medium	Medium
		State Financial Capacity	Medium	Medium
		U.S. Foreign Policy	Strong	Strong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Strong	Strong
	Y	Land Reform Outcome	Success	Limited

Source: Author

The [table 1] compares the land reform experience of South Korea after World War II and the land reform performed under former President Eduardo Frei during 1964-1970. The variables of interest grouped in this comparison are: state, landowner class, peasant class, and peasant mobilization. We can derive that when state capacity in whichever form is the same for both countries, there is strong U.S. interest in implementing land reform, and strong

domestic competition, land reform can succeed, as in the case of South Korea, when there are strong peasant groups with the sufficient pressure to redistribute land. This situation can be complemented by the existence of a weak landowner class and a weak state that cannot be manipulated by the interests of bureaucrats and a peasant class strong enough to check-and-balance the activities of the state.

[Table 2] Interpretation of the PCT Model Findings through the Hypothesis-generating Model (part 2)

Hypothesis-generating Model			CASES	
			South Korea	Chile (1970-1973)
VARIABLES	X1	State	Weak	Strong
		State Financial Capacity	Medium	Weak
		U.S. Foreign Policy	Strong	Weak
	X2	Landowner Class	Weak	Weak
		Peasant Class	Strong	Strong
		State Administrative Capacity	Medium	Medium
		Domestic Political Competition	Strong	Strong
		Peasant Mobilization	Strong	Strong
	Y	Land Reform Outcome	Success	Limited

Source: Author

As for the comparison of Post-World War II South Korea and Chile under President Salvador Allende (1970-1973) land reform, the situation changes. The variables of interest (X1) are reduced to three: state, state financial capacity, and U.S. foreign policy. In this case, we can derive that all other variables held constant, the existence of a strong state willing to implement land reform, as in the case of Chile (1970-1973), such redistributive policies can be implemented successfully. Yet from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and Chile during this period, we have found out that the lack of U.S. interest and aid for the subject country can lead to failure of land reform. This factor can directly affect the state financial capacity to finance land reform.

Conclusion

In a nutshell, through the multi-dimensional Pressure-Capability-Trigger Model and the following hypothesis-generating tests we have been able to derive some main findings of this analysis tha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esence of a strong peasant class and a weakened landowner class can be a useful catalyst to initiate land reform.

Second, stat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capacity in the most successful cases of land reform have been highly complimented by U.S. aid.

Third, U.S. foreign policy has been found out to be crucial for introducing, maintaining and sustaining land reform in these two developing countries. The degree of its involvement has been decisive in making the land reform succeed or fail.

Bibliography

- 윤대엽, (2010). 건국의 정치와 미군정: 건국헌법 농지개혁 조항의 규범적 기원과 정치적 현실. *사회과학논집*, 41(1), 125-161.
- 이혜숙, (1990). 미 군정기 일본인 재산의 처리와 농업 정책. *사회와 역사 (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23, 260-359.
- Albertus, M., & Kaplan, O. (2013). Land reform as a counterinsurgency policy: Evidence from Colombi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7(2), 198-231.
- Allison, G. (2012). The Cuban missile crisis at 50: lessons for US foreign policy today. *Foreign Affairs*, 11-16.
- Barraclough, S. (1971). Reforma agraria: historia y perspectivas.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Nacional.
- Barraclough, S., & Domike, A. L. (1966). Agrarian structure in seven Latin American countries. *Land Economics*, 42(4), 391-424.
- Becket, J. (1963). Land reform in Chile.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5(2), 177-211.
- Berdichewsky, B. (1979). Anthropology and the peasant mode of production. *Anthropology and Social Change in Rural Areas*, 25.
- Berry, Albert, and William Cline. Agrarian Structure Productivity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 Borras, S. M., & McKinley, T. (2006). The unresolved land reform debate: Beyond state-led or market-led models.
- Borras, S., Kay, C., & Akram-Lodhi, A. H. (2007). Agrarian reform and rural development'. *Land, Poverty and Livelihood in an Era of Globalization*, 1-40.
- Bredo, W. (1986). US security: Potential of land reform policy support in the third world. *JPM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14(2), 277.
- Casals, M. (2014). 'Chile en la encrucijada'. Anticomunismo y propaganda en la 'campaña del terror' de las elecciones presidenciales de 1964. *Chile y la Guerra Fría global*, 89-111.
- Castillo, L., & Lehmann, D. (1982). Chile's three agrarian reforms: the inheritors.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1(2), 21-43.
- Castillo, L., & Lehmann, D. (1983). Agrarian reform and structural change in Chile, 1965-79.
- Chonchol, J. (1976). La reforma agraria en Chile (1964-1973). *El trimestre económico*, 43(171 (3), 599-623.
- Chonchol, J. (2011). The Peasants and the Bureaucracy in Chilean Agrarian Reform. In *Popular Participation in Social Change* (pp. 353-364). De Gruyter Mouton.
- Craig, G. A., & George, A. L. (1919). Force and statecraft: Diplomatic problems of our time. -.
- Dai, H., & Tai, H. C. (1974). Land reform and politics: a comparative analysis. Univ of California Press.
- De Janvry, A. (1981). *The agrarian question and reformism in Latin America* (No. HD1790. 5. Z8. D44 1981.).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 Janvry, A. (1981). The role of land reform i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politic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3(2), 384-392.
- Fogg, B. J. (2009, April). A behavior model for persuasive design. In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uasive Technology* (pp. 1-7).
- Garrido, R. (1988). Historia de la Reforma Agraria en Chile.
- Gerring, John. 2007. *Case Study Research: Principles and Practi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n, C. S., & Gyun, P. T. (2013). Suggestions for new perspectives on the land reform in South Korea.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1-21.
- Gray, K. (2013). Aid and development in Taiwan, South Korea, and South Vietnam (No. 2013/085). WIDER Working Paper.
- Griffin, K., Khan, A. R., & Ickowitz, A. (2002). Poverty and the Distribution of Land. *Journal of Agrarian change*, 2(3), 279-330.
- Guereña, A. (2016). UNEARTHED: LAND, POWER AND INEQUALITY IN LATIN AMERICA. Oxfam International, 14-18. https://oi-files-d8-prod.s3.eu-west-2.amazonaws.com/s3fs-public/file_attachments/bp-land-power-inequality-latin-america-301116-en.pdf
- Jacobs, S. (2013). Agrarian reforms. *Current Sociology*, 61(5-6), 862-885.
- Jaimovich, D., & Toledo-Concha, F. (2020). The grievances of a failed reform: Chilean land reform and conflict with indigenous communities. mimeo.
- Jeon, Y. D., & Kim, Y. Y. (2000).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8(2), 253-268.
- Kay, C. (1981). Political economy, class alliances and Agrarian change in Chile.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8(4), 485-513.
- Kay, C. (1998). Latin America's agrarian reform: lights and shadows. Land Reform, Land Settlement and Cooperatives, 2, 9-31.
- Kay, C. (2002). Why East Asia overtook Latin America: agrarian reform, industrialisation and development. *Third World Quarterly*, 23(6), 1073-1102.
- Kay, C. (2006). Rural poverty and development strategie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agrarian change*, 6(4), 455-508.
- Kim, I. (2016). Land Reform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Occupation, 1945-1948. *Journal of Cold War Studies*, 18(2), 97-129.
- Krueger, A. O. (1979). The developmental role of the foreign sector and aid (Vol. 87). Harvard Univ Asia Center.
- Lee, S.H., 2007. The economic policy and the role of the US - USSR army military governments in Korea. Unification Research 11 (1), 51-89. http://www.riss.kr.access.yonsei.ac.kr:8080/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e42afeacf8ee2a3fffe0bdc3ef48d419 (Accessed 22 August 2016).
- Lewis, W.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 Mamalakis, M. (2021). The Growth and Structure of the Chilean Economy: From Independence to Allende. *Revista Notas Históricas y Geográficas*, 333-338.
- McCune, G. M. (1947). Korea: The first year of liberation. *Pacific Affairs*, 20(1), 3-17.
- McCune, G. M. (1947). Post-War Government and Politics of Korea. *The Journal of Politics*, 9(4), 605-623.
- Millett, A. R. (2003). Korea Under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7(1), 285-286.
- Pan, S. H., Ban, S. H., Mun, P. L., & Perkins, D. H. (1980). Rural development (Vol. 89). Harvard Univ Asia Center.
- Park, J. H., & Han, M. H. (2018). Modern state formation and land management in South Korea: 1945-1960. *Land Use Policy*, 78, 662-671.
- Park, T. G. (2000). US Policy Change toward South Korea in the 1940s and the 1950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89-104.
- Plantamura, P. M. (2013). Impacts of US Foreign Policy and Intervention on Guatemala: Mid-20th Century.
- Power, M. (2008). The engendering of anticommunism and fear in Chile's 1964 presidential election. *Diplomatic History*, 32(5), 931-953.
- Sands, D. R. (1982). Chile Under Frei: The Alliance for Progress. Fletcher F., 6, 33.
- Sang-Hoon, L. (2011). Syngman Rhee's Vision and Re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 and Thereafter.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4(3), 33-60.
- Senate, U. S. (1975, December). Covert action in Chile 1963-1973. In 94th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Vol. 18).
- Shin, G. W. (1994). The historical making of collective action: The Korean peasant uprisings of 194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9(6), 1596-1624.
- Shin, Y. H. (1976). Land Reform in Korea, 1950.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4-31.
- Sigmund, P. E. (1977). The overthrow of Allende and the politics of Chile, 1964-1976. University of Pittsburgh Pre.
- Silva, P. (1988). The state, politics and peasant unions in Chil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20(2), 433-452.
- Spence, J. (1978). Class Mobilization and Conflict in Allende's Chile: A Review Essay. Politics & Society, 8(2), 131-164.
- Steenland, K. (1974). Rural strategy under Allend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2), 129-146.
- Sung-Chan, H. (2013). Land Reform and Large Landlords in South Korea's Modernization Project.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26(1), 23-45.
- Swidler, A. (1986). Culture in action: Symbols and strateg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3-286.
- Teichman, J. (2012). Social forces and states: poverty and distributional outcomes in South Korea, Chile, and Mexico. Stanford University Press.
-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2008). Kdevelopedia. https://www.kdevelopedia.org/Development-Overview/government-law/us-army-military-government-kore-usamgik--201412090000377.do?fldRoot=TP_GOV&subCategory=TP_GOV_PO
- Unidad Popular (Chile). Programa básico de gobierno de la Unidad Popular: candidatura presidencial de Salvador Allende. Disponible en Memoria Chilena, Biblioteca Nacional de Chile <http://www.memoriachilena.gob.cl/602/w3-article-7738.html>. Accedido en 2021. 4. 22.
- Valdés, A., & Foster, W. E. (2014). The agrarian reform experiment in Chile: History, impact, and implications (Vol. 1368). Intl Food Policy Res Inst. Von Bennewitz, E. (2017). Land Tenure in Latin America: from Land Reforms to Counter-Movement to Neoliberalism. Acta Universitatis Agriculturae et Silviculturae Mendelianae Brunensis, 65(5), 1793-1798.
- Walinsky, L. J., & Ladejinsky, W. (1977). Agrarian reform as unfinished business: the selected papers of Wolf Ladejinsky.
- Winn, P., & Kay, C. (1974). Agrarian reform and rural revolution in Allende's Chil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6(1), 135-159.
- You, J. S. (2014). Land reform, inequality, and corruption: A comparative historical study of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2(1), 191-224.
- You, J. S. (2017). Demystifying the Park Chung-Hee Myth: Land reform in the evolution of Korea's developmental state.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7(4), 535-556.
- Zeitlin, M., & Ratcliff, R. E. (1975). Research methods for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dominant classes: the case of landlords and capitalists in Chil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0(3), 5-61.

